

# 올해 高1 '학생부 간소화' 첫 적용 의미 있는 교내활동에 충실하라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고1이 되는 수험생들이 개편안의 첫 적용을 받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기재 간소화가 핵심이지만, 항목별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한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학생부 기재 개선안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 ◆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9일 교육부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번 학생부 기재 개선의 핵심 키워드는 '간소화'다. 기존 학생부에서 '인적사항', '학적사항'이 한 항목으로 통합됐다.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한 대신 학생의 희망 진로에 대한 내용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하다.

학교별 차이가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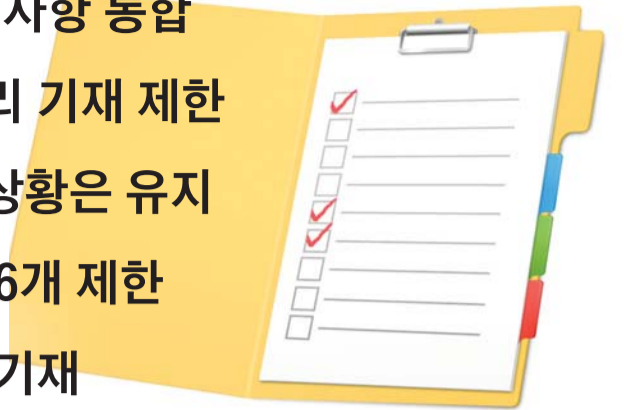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등 총 6개로 제한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의 각 항목 역시 간소화됐다. '봉사활동'은 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다.

대학 교수 자녀의 공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소논문' 내용은 학생부 모든 학

목에서 기재할 수 없게 됐다. 학생부 기재 항목은 '진로희망사항'을 제외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지된 항목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로 간소화하는 것 외에는 변화된 내용이 없다. 학생의 관심분야와 학업에 대한 자기주도성, 열정, 심화

- ✓ 인적·학적사항 통합
- ✓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 ✓ 독서활동상황은 유지
- ✓ 수상경력 6개 제한
- ✓ 소논문 미기재



학습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독서활동상황'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 ◆ 학생부 중요성은 그대로

입시전문가들은 학생부 기재 항목이 변경됐다고 해서 해당 항목의 중요성이 대입에선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수상경력의 경우 대학에 제공하는 최대 개수가 6개로 제한되지만,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여전히 학생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노력이나 관심사, 충실도 등을 대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동아리활동 역시 자율동아리 기재는 제한됐지만 정규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이 확대되고 대학도 이를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되더라도 학생의 학적 변경사항은 남아 있어, 전학 등의 이유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는 여전히 정량평가 대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실성, 봉사의 진정성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논문 활동의 경우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기재할 수 없게 됐지만, 수업 시간의 발표, 과제 제출, 교과 관련 질문, 심도 깊은 독서활동 등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 정규 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 정규 활동 중 '무의미한 교내 활동에 충실한 참여'보다는 '목적이 명확한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내 경시대회 참여 목적이 수상이 아니라 '대회 주제에 대한 관심'이어야 하고, 독서를 하게 된 이유는 추천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과 내용 중 언급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서'라고 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동국대 강용목 교수팀 '나트륨 이온 양극소재'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는 강용목 교수 연구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에 비해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나트륨 이차 전지용 양극 소재의 안정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강 교수 연구팀은 다년간 리튬 이차 전지 양극 및 음극의 성능에 필적하면 서도 낮은 단가를 가지는 나트륨 이차 전지 양극용 Mn(망간)계 산화물 및 음극용 하드 카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로서 층상구조(P2)를 가지고 있는 Mn계 산화물의 나트륨 이온 자리에 Zn(아연)을 치환함으로써 Jahn-Teller distortion, Phase separation 등의 Mn계 층상구조 산화물 양극을 불



강용목 교수      장카이 박사

안정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제 1원리 계산을 통해 예측된 해당 효과들을 전자현미경, 방사광 X-ray 분석 등 첨단 분석들을 통해 확인했으며, 해당 소재의 수명 특성을 포함한 제반 전기화학특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상명대·광운대·경기대

#### 농어촌지역 학종 모의면접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광운대, 경기대 등 3개 대학 입학처와 공동으로 지난 8일 광운대에서 경기지역 내 농어촌지역 고교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소외 지역 학생부종합 모의면접'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모의면접 전형은 각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생이 15분간 실제 면접고사와 비슷한 형태의 모의면접고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한 정보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시준비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경희사이버대

#### 신·편입생 모집 내일 마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11일 2019학년도 전기 1차 신·편입생 모집을 1차 마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 앞서 경희사이버대는 초연결사회, 인공지능(AI) 등 문명의 대전환기 변화를 이끌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표로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 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한방건강관

리학과 등을 신설하고 후마니타스학과 등 개편을 통해 3개 계열, 5개 학부·스쿨, 34개 학과(전공) 체제를 마련했다.

모집 학과(전공)는 미래과학계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등이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 '고용불안' 느껴

## “이 직장, 60세까지 다닐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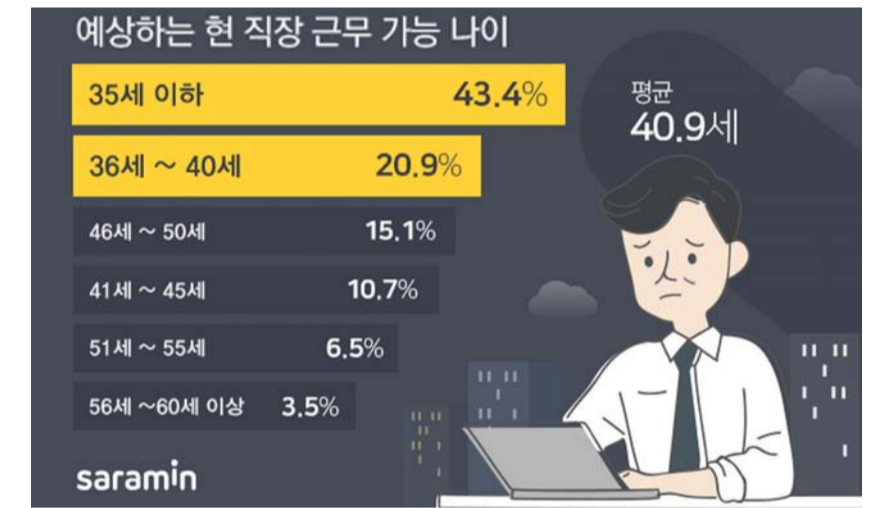
### 사람인 615명 대상 설문조사

#### 중·대기업 순 불안 느껴

기업 실적악화와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의 고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람이인 직장인 615명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는 본인의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같은 조사 결과보다 7.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40대(83.3%), 30대(74.9%), 50대(68.6%), 20대(60.7%) 순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았고, 재직중인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71.8%), 중견기업(67.3%), 대기업(66.7%) 순으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직무별로는 ▲광고·홍보(80%) ▲기획·전략(77.1%) ▲제조·생산(74.3%) ▲영업·영업관리(73.5%) ▲IT·정보통신(73.3%) 등 분야 종사자가 불안감을 많이



느낀 반면, ▲재무·회계(65.1%) ▲디자인(65.8%) ▲연구개발(66.7%) 등은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가지는 비율이 적었다.

이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37.1%)를 가장 많이 꼽았고,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29%),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서'(25.8%), '회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서'(22.1%),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2.4%) '야근 등을 늘림'(6.5%) 등을 들었다.

고용 불안감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은 '이직 및 퇴사를 고민함'(6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의욕이 떨어짐'(64.3%), '자기개발을 하게 됨'(27.6%), '업무 성과가 감소함'(15.9%) 등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 집테크 기대수익률 59%... 빛내서 집산다

#### 인크루트 직장인 844명 설문조사

부동산을 보유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대출을 이용했고,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직장인이 많은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인크루트가 지난달 7일~21일까지 직장인 등 회원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을 보유한 응답자는 절반 수준(47.7%)이었고

구매가 평균(주관식)은 3.57억 원, 현재 실거래가는 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대심리가 반영됐을 수 있으나, 수익률로 따져보면 무려 59%에 달한다.

부동산 구매가는 ▲2억 이상~3억 미만(26%)이 가장 많았고, ▲1억 이상~2억 미만(20%), ▲3억 이상~4억 미만(18%) 구간 순으로, 현재 시세의 경우 ▲3억 이상~4억 미만(21%), ▲2억 이상~3억 미만(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을 보유한 직장인 68.5%는 부동산 보유를 위해 대출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